

4·3의 남은 과제 ‘정명 찾기’… “공감대가 중요”

<正名>

제주4·3연구소, 지난 10일 4·3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8년을 정명의 해로”… 배제된 희생자 문제 비판도

제주4·3의 남은 과제 중 하나인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 문제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배제자’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4·3의 미뤄진 정의-4·3 정명·배제자’를 주제로 지난 10일 제주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를에서 열린 제주4·3연구소 주최 제주 4·3 제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다.

우선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왜 지금 4·3의 정명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풀어냈다.

양 전 이사장은 정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근

거해 현재의 공식 명칭은 ‘제주4·3 사건’이라며 “이 명칭은 진상규명 단계에서 유용했고 4·3의 진실 확보와 위상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합적인 4·3의 성격을 ‘분단 저지를 위한 항쟁’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압축해 규정했다. 하지만 공식 이름에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 길게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항쟁과 학살’로 압축하고 다시 압축한다면 ‘항쟁’으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4·3 80주년 2028년을 정명의 해

로 삼자’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명 작업은 무엇보다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해야한다”며 “유족회·연구소 등 4·3단체들이 앞장서서 정명 운동을 벌이든가, 도의회에서 대구처럼 ‘항쟁’의 명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일도 검토해볼 만 하며 정치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제된 희생자 문제가 다뤄졌다.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희생자 제외대상 20년사 재고: 논쟁을 위한 질문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3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외대상을 완화해 확정 지은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고 교수

는 “‘희생자 제외대상’ 문제가 특별법 개정, 수형인 인정, 희생자 심사, 불량위패, 정명, 직권재심 등 과거사 해결의 핵심 쟁점들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묵인돼 왔다”며 “제외대상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됐는지 외에는 증거자료 범위 등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제라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민과 폭도의 틀을 넘어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1년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제외 기준 결정이 4·3특별법이 추구하는 ‘화해와 상생’을 배격했다며 “배제적 해법은 당시 폭력 통치를 정당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교육현장 목소리… 제주교육청 타운홀 미팅

이달 23일·내달 27일 두 차례
교육활동 보호·안전 개선 논의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청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달 23일과 내달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주제로 예고됐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 정책 과제를 찾기 위해서다. 참여 인원은 100명 내외로 원탁 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교원, 교원단체 등이며, 장소는 제주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이다.

2차 타운홀 미팅은 같은 장소에서 ‘안전한 하루가 일상이 되는 학교, 함께 만드는 제주교육 안전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 등은 추후에 안내된다.

도교육청은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의견을 단기 개선, 중장기 검토, 제도 개선 등 과제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토론 결과를 관련 부서 검토 자료 등으로 활용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교사 66% “IB 확대보다 일반학교 지원을”

제주교총 설문… 교육감 IB 공약 중 부정 평가 우세
학급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요구 가장 높아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고의숙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IB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제주교총이 지난 6·9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210명이 참여했다.

12일 제주교총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 IB 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65.7%가 ‘확대를 제한(축소)’하고 일반 학교와의 균형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9%)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9%)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이런 현장의 의견은 교육감의 공약인 ‘제주형 IB 교육 내실화와 IB DP 고교 추가 지정’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됐다. 특히 이 공약에 대해선 부정 평가(37.1%)가 긍정 평가(32.9%)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공약 중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높은 항목으로 “IB 확대 기조와 현장 인식의 간극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제주교총은 분석했다.

학력 신장·AI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61.9%(복수응답)가 ‘플랫폼·기관 신설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기본 교육여건 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공약별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는 67.1%가 긍정한 것과 달리, ‘제주교육AI플랫폼’(47.6%)·‘제주AI미래교육원’(48.6%)의 긍정 평가는 절반 밑에 머물렀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새 교육감과 인수위가 이 수치를 정책 우선순위의 근거로 삼아, 신설 사업의 화려함이 아니라 교실의 기본을 채우는 데서 임기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모자의료 진료 협력 강화” 제주대병원, 시범사업 선정

제주지역에서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일반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연계하는 진료 협력이 추진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내 4곳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모자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응급 분만 발생 시 권역센터가 환자를 수용하고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 진료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에선 제주대학교병원이 대표기관을 맡아 응급·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 역량을 연계하고 신속한 이송과 치료 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서귀포의료원과 예나산부인과의원, 탐평한산부인과의원, 드림포레산부인과의원 등 도내 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협력한다.

박소정기자



집재만한 파도 밀려드는 법환동 해안 제9호 태풍 ‘바비’의 간접영향으로 제주해안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11일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으로 높은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제주시, 연말까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취업취약계층 841명 채용… 409개 사업 참여

제주시가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행, 취업취약계층 등 841명을 공개 채용했다.

시는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8~15일 신청을 받은 결과, 가구소득과 보유자산 등 참여자격 기준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841명이 선발됐다. 사업별로 공공근로사업에 2656명이

신청한 가운데 794명이 뽑혔고, 청년공공일자리사업에는 82명이 몰린 가운데 이 중 16명이 합격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50명이 신청했고 31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청사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DB 구축 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 지원 사업 등 409개 사업에 참여한다.

백금탁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